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4/4분기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생계시세가 그렇고, 계육업계에 종사하던 분들이 다양한 우여곡절로 인해 다른 업계로 이전된 것 같다. 올해 들어 상당수의 유통업체들이 도산을 했고, 거래하던 어음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가? 시장의 전체 규모가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특히 무역업체들의 경우 수입하는 회사는 늘어나는데, 이를 유통하는 회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10월 시장은 좀처럼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부디 이러한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다.

10월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걱정되는 시기이다. 올해에만 100명이 감염되어 66명이 사망했을 만큼 무서운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아시아, 중동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병하고 있다. 최대 피해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람간 전염사태를 공공연한 비밀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

진국에서는 전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다하니 조금이나마 안심된다.

10월 시장의 키워드는 '부메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8월 미국산 닭고기 검역이 잠정 중단되었을 때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수입금지까지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만했다. 8월과 9월 수입량은 급격히 떨어져서 국내 계육시장의 안정이 전망되었는데, 수입금지가 되어있는 동안 대다수의 수입업체들이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과 날개(wings)를 계약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상당량의 물량으로 인지되고 있다.

날개(Wings)의 경우 치킨전문업체 K치킨에서 전량 판매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이어지며,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 브라질의 강요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계약되었다. 8월과 비교해서 브라질산 정육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추석 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9월 선적분의 경우 통날개(Three Joint Wings)는 2,500불, 정육(Bone Less Leg Meat)은 1,700불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10월 선적분의 가격은 다소 떨어진 상태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오퍼가격이 크게 다르다. 과거의 경우 언제나 일본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그 남은 수량을 한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브라질 패커들은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 일본은 1,450불, 한국은 1,600불, 통날개(Three Joint Wings)의 경우 한국은 2,500불이나 일본과 타국가의 경우 2,000불 미만으로 거래하고 있다.

8월 브라질 정육의 경우 1kg당 2,200~2,300원 정도였으나, 9월에는 1,900~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업일수가 적은 10월의 경우 좋은 전망은 나오지 않는다.

미국

수급의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다.

질병발생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비롯하여 멕시코 등 미산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주 등이 그것이다. 10월 오퍼가격은 약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9월에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고,

넓적다리(Bone In Thigh) 만이 다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꾸준히 중국산 가공품이 수입되고 있다. 데리야끼 꼬치, 스팀 꼬치는 이미 한국 시장에 완전히 정착한 듯하다. 과거에는 상품의 샘플을 확인하고 거래가 되었으나 지금은 공장번호와 브랜드만 확인하고 선입금후 처리하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다시 중국을 방문,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훈제닭고기와 훈제 오리다 그것이다.

결론

모든 것을 파괴할 것 같은 태풍이 지나가면 오히려 자연은 되살아나고, 모든 생명을 빼앗아 갈 것 같은 산불이 지나가면 역시 새싹들이 더 잘 자란다고 한다. 시장도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닌가 싶다. C업체의 식중독 사건 이후 많은 업체들이 영업정지, 물건압류, 시정명령을 받아 폐업과 전업하는 어두운 사례를 보았으나, 한편에서는 이런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작게는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크게는 공장을 증설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실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래도 시장은 돌아간다. 부디 공정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